

## 『콰드로페니아(Quadrophenia, 1979)』 영화의상에 나타난 모즈스타일

이진경·이연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배경의 모즈를 주제로 제작한 영화 콰드로페니아(Quadrophenia)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의 의상 자료를 통해 모즈 스타일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서, 196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패션경향, 그리고 대표적 하위문화였던 모즈에 대하여 문헌자료를 통해 고찰하고, 영화 속에서 모즈족을 대변하는 주요 인물들의 의상을 사례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본 모즈는 상류사회에 대한 동경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심해진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 저항하는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 젊은이들을 칭하는 개념이자 그들만의 스타일, 취향을 표현한 하위문화이다. 남성모즈의 패션 스타일은 짧은 기장의 재킷과 폭이 좁은 바지로 구성된 테일러드형의 맞춤 정장으로 대표되며, 여성모즈는 베이직한 색상이나 밝은 원색에 심플한 디자인의 스웨터 또는 블라우스와 무릎길이의 H라인 스커트를 입은 단정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대표된다. 영화 콰드로페니아의 주인공 지미 쿠퍼, 여성 모즈족인 스테프, 모즈족 리더로 등장한 에이스 페이스, 그리고 그 외의 모즈족 의상을 분석한 사례연구의 결과는 60년대 모즈에 대한 문헌 고찰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영화에 등장한 모즈 스타일은 편안하고 여유있는 X형이나 H형의 실루엣, 무채색부터 원색까지 밝고 다양한 색상, 차가운 느낌의 가죽이나 합성섬유 혹은 모헤어와 같은 고급스러운 소재를 특징으로 하며, 대부분의 모즈는 둥그랗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페도라, 선글라스, 스틸레토 힐, 숄더백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하였다.

주제어 : 콰드로페니아, 모즈 스타일, 하위문화

## I. 서론

21세기의 패션은 다양한 종류의 스타일(Style)이 공존하고 있다. 이 스타일들은 무(無)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스타일들에서 변화하고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유행했던 스타일들을 재조명하고 분석해보는 것은 현재 패션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과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도 20세기에 등장한 하위문화 스타일들은 꾸준히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그 시기의 트렌드에 맞는 특징들이 반영되어 재해석되며 발전·변화된 또 다른 스타일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하위문화 스타일들은 오늘날 하이패션 디자인의 원천이 되며, 한 시대의 스타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화를 거치며 우리 삶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는 이전에 비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패션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꾸준히 패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노년층이나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지고 개인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들이 수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대 남성들의 패션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단조롭고 제한적이지만 하던 남성 패션에 점차 다양한 시도를 일으키며 여성 패션에서만 볼 수 있던 특성이 반영된 스타일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남성복에서는 다양한 스타일 중에서도 미니멀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영국의 하위문화 스타일 중 하나로 단정하고 깔끔한 것이 특징인 모즈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동안 하위문화 스타일 중에서도 ‘모즈’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러 하위문화 스타일을 다루며 그 일부로 모즈를 다루거나(권해기, 2002<sup>1)</sup>;

양미경, 2002<sup>2)</sup>) 1960년대의 모즈에 대해 고찰하며 1990년대의 재해석된 모즈를 분석하거나(이명진, 1998<sup>3)</sup>; 정연자, 1997<sup>4)</sup>) 비틀즈(이정원, 금기숙, 2008<sup>5)</sup>) 또는 메리퀸트(송아미, 2013<sup>6)</sup>)와 같은 인물과 연관 지어 다룬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모즈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즈를 주제로 제작한 영화를 통해 1960년대에 등장한 모즈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선택한 영화는 영국 출신 감독인 프랭크 로덤(Franc Roddam)의 1979년작 『콰드로페니아(Quadrophenia)』이다. 이 영화는 1960년대 중반,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모즈족과 록커족이 카나비 스트리트에서 시비가 일다가 결국 브라이튼 해변에서 대대적으로 대립했던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당시에는 모즈족과 록커족이 모두 대표적인 하위문화스타일로 꼽히지만, 이 영화는 모즈족의 초점에 맞춰 제작되었다. 영화는 모즈 스타일이 유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70년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재현되는 영화들에 비해 당시의 특징을 잘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를 통해 모즈 스타일이 등장한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모즈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영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자료를 통해 모즈족을 대변하는 주요 인물들의 의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를 통해 모즈 스타일의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영화라는 시각적 자료를 통해 모즈 스타일에 나타난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영화의 시대적 배경

### 1. 1960년대 사회 문화적 배경

유럽이 두 번의 전쟁을 겪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며 물자 부족이나 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나게 된 시기인, 1960년대는 사회, 문화, 과학 등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1960년대는 세계가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시대로 잡지, TV, 영화 등 대중매체가 발달하며 대중문화가 급속히 발달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3C 시대(Color TV, Car, Cooler)가 도래했다.<sup>7)</sup> 이 시기에 발달한 대중 매체는 광고 등을 통해 대량소비를 주도하며 소비주의를 이끌었다. 그동안 막강하던 유럽은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며 타격을 입게 되고 이 상황에서 소비주의 시대에 접어들자 미국이 모든 부분에서 입지가 강화되었다. 서구 사회를 대표하는 미국에서는 흑인 민권운동, 젊은 대통령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 정신과 그의 죽음, 비틀즈와 록 스타들에 대한 열광적 몰두,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과 반 핵, 학생운동, 여권 신장 운동, 사랑과 꽃, 마약과 일탈의 저항문화, 스포츠에 대한 열광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sup>8)</sup> 1969년에는 미국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과학혁명의 시대가 열렸다.<sup>9)</sup>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이후에는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전쟁 후 출생률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 시기의 출생자들이 1960년대에 청소년층으로 성장하며 사회문화에 변화를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이 시기의 십대들은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달리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고, 전통적으로 행하여졌던 기성세대에 대한 복종의 관습마저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성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직접적 경험을 열망하며 기

성세대와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 구매력을 가진 새로운 소비자로서 부모 세대와 차별화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sup>10)</sup> 이러한 예로 영국에 등장하는 하위문화를 들 수 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적 지배 계층에 대한 젊은 계층의 반발로 불안정한 사회 체계를 보이며 이에 대한 현상으로 하위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위문화는 광범위한 문화 내에 위치하면서 사회 역사적 구조 내에서 특정한 피지배 사회집단이 직면한 특정한 입장과 특수한 갈등에 부합하는 타협적인 문화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수용자 집단에서도 각자의 조건에 따라 문화를 실천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sup>11)</sup> 복식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는 안에서 ‘하위문화’라 명할 수 있는 범위는 하위 문화를 저항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정한 사회 체계로부터 비롯된 역사적 하위문화와 기존의 규범적인 복식 규칙에 어긋나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 일반적 하위 문화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하위문화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패션을 일컫는 경우를 ‘하위문화 스타일(subcultural style)’이라 한다. 이 용어는 특별한 하위문화 집단과 관련된 드레스 코드로 정의되며, 지배적 주류 패션과 다르고, 스타일을 통한 저항 형식을 가지며, 같은 의견의 사람들과 동일시하려는 열망을 함축하는 스타일을 의미한다.<sup>13)</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즈의 패션을 일컫는 경우에는 ‘모즈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60년대의 영국은 ‘스윙잉 런던(Swinging London)’이라는 음악 혁명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1962년에 비틀즈가 첫 앨범을 발매하며 그들의 자유로운 정신세계와 음악, 패션까지도 젊은이들에게 모방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카나비 스트리트(Carnaby Street)와 킹스 로드(King’s Road)는

장발의 소년들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쇼트 헤어의 소녀들로 넘쳐났고, 팝 음악의 비트와 함께 런던은 십대 청소년들의 문화 중심지가 되었다.<sup>14)</sup>

이 시기는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이론들과 예술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준 미니멀리즘(Minimalism)이 나타났다.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최소한의 조형 수단으로 제작한 회화나 조각과 같은 ‘최소한의 예술(Minimal art)’을 뜻하며, 미학적인 범위에서 극도로 단순화하는 것이 특징이다.<sup>15)</sup> 예술 양식은 과학 기술과 결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옵 아트(Op Art), 팝 아트(Pop Art), 키네틱 아트(Kinetic Art) 등을 통해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예술 사조가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성행함에 따라 추상적이고 대담한 무늬를 사용하거나 강렬한 색의 배합과 기하학적 무늬로 특수한 시각적 효과를 노린 디자인 등 관념을 탈피한 형태의 대중 예술로도 전개되었다.<sup>16)</sup>

## 2. 1960년대의 패션 경향

1960년대 패션계는 베이비 붐 세대의 등장과 영 컬처의 형성, 하이테크 문화, 육체미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 모델의 등장, 새로운 미술장르의 등장으로 영향을 받았다.<sup>17)</sup> 특히 청소년들의 복식은 변화가 많은 당시의 사회상을 나타내듯이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패션으로 표현되었는데, 저항적이고 일탈적 행태와 사상을 상징하는 특징들이 의복에 담기게 되었다. 그 예로, 지성적 느낌을 강조한 검정색의 옷차림, 에드워드시대의 수트, 에스닉 패션, 록 스타들의 가죽 재킷, 사이키델릭한 컬러, 너털거리는 복식, 시대착오적인 복식, 저항적 모습의 장식이나 뾰뾰 깎은 머리의 작업복 스타일 등 눈에 띄는 특이한 복식 스타일을 들 수 있다.<sup>18)</sup>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젊은이들이 주류 패션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대중패션

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의 디자이너 메리 퀴트(Mary Quant)는 오프 퀴튀르를 거부하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저렴하고 재미있는 디자인을 제안하였는데, 1963년에는 미니스커트와 핫팬츠를 선보이며 인기를 얻었다. 이로부터 3년 후에는 허벅지까지 올라간 초미니 스커트를 발표했다.<sup>19)</sup> 미니스커트는 스피드 시대의 감각을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세계 전역에 걸쳐 오랫동안 유행했다.<sup>20)</sup>

1960년대는 우주여행과 더불어 하이테크의 시대로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프랑스에서는 앙드레 쿠레주(Andre Courreges)가 우주시대의 패션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몬드리안 드레스(Mondrian Dress)로 주목을 받았다.<sup>21)</sup>

영국의 락앤롤 그룹인 비틀즈는 에드워드 시대의 우아한 복장 스타일과 풍습을 초근대적으로 흉내 내면서 사회에 초연한 듯 한 태도를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했는데 청소년의 우상이 된 비틀즈와 그 밖의 락 가수들의 복장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모즈 룩(Mods Look)을 유행시키기도 하였다.<sup>22)</sup>

## 3. 1960년대의 대표적 하위문화: MODS

모즈(Mods)는 1960년대 영국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하위문화이다. ‘모더니스트(Modernist)’의 준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광받았던 청소년 스트리트 스타일인 테디보이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하였다. 모즈족은 대중, 대량문화, 플라스틱, 모조 문화의 전성기였던 기성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젊은이들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문화로 영국을 중심으로 하류 노동자계층의 청소년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술대학생들과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들의 삶은 쇼핑과 패션이 중심이었다. 모즈는 상대적으로 낮 시간 동안의 낮은 지위에 대한

보상을 밤에 외모를 꾸미거나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것에서 찾으려 했으며, 팝 문화와 록 음악의 탄생과 함께 1960년대를 대변하는 하위문화를 형성하였다.<sup>23)</sup>

모즈족은 학교, 공장 그리고 여가 사이를 부드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드러내는 만큼이나 숨기는 하나의 스타일을 창조했다. 의상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단정함을 추구했다. 모즈 스타일은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착용감이 편하고 심플한 실루엣이 핵심 포인트이다.<sup>24)</sup>

문헌을 바탕으로 모즈 스타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자의 경우는 매끄럽고 짧은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깔끔한 이탈리아 스타일을 추구하며 밝은 색상으로 라운드 칼라나 버튼다운 칼라의 셔츠를 입고 폭이 좁은 타이를 댔다. 상의로 셔츠대신에 터틀넥을 입기도 했다. 두 개의 짧은 벤트(vents)가 있고 쓰리 버튼의 여밈으로 된 짧은 길이의 로만 재킷을 착용하였다. 재킷 라펠의 폭은 좁은 편이며, 어깨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단을 접지 않은 17인치(inch) 이하의 폭이 좁은 바지를 입었다. 수트의 소재는 모헤어를 선호했다. 신발의 경우 뽀족한 구두를 신었다. 베스파나 램브레타 등의 브랜드의 모터스쿠터를 타고 몰려다닐 때는 어두운 녹색의 파카나 아노락을 착용했다. 여성의 경우는 크레이프 나일론(crepe nylon)으로 된 페티코트와 짧은 길이의 블레이저 재킷을 입었다. 솔기가 없는 스타킹을 신고 앞코가 뽀족하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다. 요정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였으며, 연보라 빛을 띤 시체같이 창백한 얼굴에 진한 마스크라를 사용하는 메이크업을 했다.<sup>25)</sup><sup>26)</sup>

모즈족들은 각성제인 암페타민을 복용했으며, 학교나 공장의 일이 끝나면 클럽이나 디스코텍, 부띠끄, 레코드 가게와 같은 그들의 ‘공식세계’에 몰두했다.<sup>27)</sup> 그들은 미국의 소울 음악이나 자메이카의 스카(ska)를 들었고, 자신들만의 영국적 음악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빨간색, 흰색, 파란색으로 된 파닉 모양의 배지나 로고를 만들어 파카나 재킷, 베스파 스쿠터(Vespa scooter)에 달고 다니며 유행시켰다. 모즈의 라이벌은 로커인데, 이들은 검은색 가죽 바이커 재킷과 진을 입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며 모즈족과 차별성을 띠었다. 그들은 미국의 로큰롤 음악에 동조했다. 그들은 모즈에 비해 외모 가꾸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sup>28)</sup> 모즈와 대비되는 이러한 특징들로 로커족은 모즈족의 단정함과 깔끔함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 모습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III. 『콰드로페니아』 영화 의상 분석

#### 1. 작품 개요

『콰드로페니아(Quadrophenia, 1979)』는 영국의 프랭크 로담(Franc Roddam) 감독의 영화이다. 모즈족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더 후(The Who)가 1973년 발표한 록오페라 앨범 『Quadrophenia』를 기초로 만들었다. 콰드로페니아는 더 후가 4를 뜻하는 ‘Quadro’와 정신분열증의 ‘Schizophrenia’를 합성해 만든 단어이다. 주인공인 지미는 각성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4명의 자아로 분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 4명의 자아는 더 후의 네 명의 멤버를 각각 상징하는데 ‘터프가이와 무기력한 댄서’인 로저 돌트리(Roger Daltrey, 보컬), ‘로맨틱한 사람’인 존 엔트위슬(John Entwistle, 베이스, 보컬), ‘피 비린내 나는 미치광이’인 키스 문(Keith Moon, 드럼), 그리고 ‘거지와 위선자’인 피트 타운센드(Pete Townshend, 기타, 보컬)이다.<sup>29)</sup> 영화에서 지미는 지속적으로 각성제를 복용하며 점점 더 예민해지고 상황에 따라 정신분열증 증세처럼 쉽게 흥분해서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며 잘해주는 로맨틱한 면을 보이다가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친 듯이 행동하거나 과격해지는 등 극단적인 특징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는 1960년대 중반,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당시 브라이언트 해변에서 모즈족과 로커족이 대립했던 사건을 소재로 했으며 당시 모즈족을 택한 젊은 세대들의 반항과 일탈, 좌절 그리고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은 모즈족 남성으로 자신의 직업을 싫어하고 부모님과 마찰을 빚는 십대 청년, 지미 쿠퍼(Jimmy Cooper)이다. 지미는 오직 모즈족의 일원이라는 자신감으로 살며 대부분의 모즈족이 자신들의 수입을 옷을 사거나 자신을 꾸미는 일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도 낮에는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밤에는 모즈족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다니고 마약을 하며 인생을 즐긴다. 그러던 중 당시에 사사건건 대립을 하던 모즈족과 로커족은 브라이언트 해변에서 열리는 बैं크 홀리데이(Bank Holiday)에 참석해 폭동을 일으킨다. 지미는 여자친구인 스텝(Steph)와 도망을 치지만, 결국, 모즈족의 리더이자 자신의 우상인 에이스 페이스(Ace Face)와 함께 체포되어 재판 받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된다. 런던의 집으로 돌아오지만, 지미가 복용하던 마약을 발견한 어머니는 그를 집에서 내쫓는다. 직장에서는 지각을 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고 그만두게 된다. 더불어 자신의 여자친구마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사귀는 걸 알게 되고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그는 다시 브라이언트 해변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해변으로 가는 길에 어느 호텔 앞에서 자신의 우상인 에이스의 베스파 스쿠터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지만 에이스가 호텔의 벨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순간에 자신의 우상이었던 에이스에 대한 환상이 깨지며 걸모습은 부유층과 같은 외모를 추구해도 실체로는 노동자 계급일 뿐인 현실에 절망한 지미는 에이스의 베스파 스쿠터를 훔쳐 타고는 브라이언트의 해안 절벽을 따라 달리다 전속력으로 절벽 아래로 뛰어 내리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 된다.

## 2. 등장인물의 모즈 스타일 분석

### 1) 지미 쿠퍼

본 영화의 주인공이다. 부모님과 마찰을 빚으며 갈등을 일으키는 10대 청년이다. 우편배달원인 자신의 직업을 싫어하지만 고급스러운 맞춤형장을 살 돈을 마련하기위해 의욕 없이 일을 한다. 본인이 모즈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영화 내내 쉽게 흥분하거나 상처를 받고 우울해하거나 좌절에 빠져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이며 감정의 변화가 매우 심한 성격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현실에 반항하는 20대이기도 하지만 모즈족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 각성제 암페타민의 영향도 있다. 모즈족의 특성이 그러하듯 일이 끝나면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각성제를 먹고 스쿠터를 타고 클럽에 가서 노래를 듣고 춤을 추며 파티하는 것을 좋아한다. 맞춤형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헤어샵에서 머리 손질을 받으며 평소에도 자주 외모에 신경을 쓰는 등 전형적인 모즈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페타민의 영향과 상황에 따라 감정변화가 심해지며, 다양한 성향이 나타난다.

지미는 우편배달원으로서 일할 때나 일상, 모즈족 일원으로 함께 하는 상황 모두 전형적인 모즈 스타일을 보여준다. 먼저, 직장에서는 회색과 검정의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슬립한 테일러드 재킷에 주름이 없는 폭이 좁은 검정색 팬츠를 착용한다. 이너웨어로는 셔츠를 입고 폭이 좁은 넥타이를 맨다. 낮은 직급의 직원이지만 직장 상사들에 뒤지지 않는 좋은 옷을 입어 걸모습만큼은 부유해 보이도록 신경을 쓰고 다닌다.

일상에서는 모즈족의 성향을 드러내기는 하나 다른 상황에 비해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입을 것을 볼 수 있다. 상의는 폴로 셔츠라 불리는 단색의

풀오버형 니트 셔츠나 라운드 또는 V넥의 스웨트 셔츠를 주로 입는다. 때때로 프레드 페리와 같은 브랜드의 로고가 보이는 티셔츠를 착용한다. 이 역시 겉모습에 신경쓰는 성향을 보여주는 예이다. 하의는 데님 팬츠나 자주색의 면 소재로 된 팬츠를 착용한다. 단정하고 깔끔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겉옷으로 자주색 테일러드 재킷을 입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브라이트 해변의 모임은 영화에서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모임으로 지미는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헤어샵에 가서 헤어드라이기와 헤어스프레이를 이용해 머리 손질을 받고 다크 브라운 색상의 맞춤형 정장을 준비한다. 정장 재킷은 슬림한 핏이며 길이가 짧은 편으로 뒤 중심의 벨트 길이가 짧게 나타난다. 흰색의 와이셔츠와 정장과 같은 색상의 넥타이와 함께 착용한다. 더 없이 단정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의상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패션에 집착하는 모즈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미가 착용하는 재킷은 대체로 슬림하게 몸에 피트되는 X형 실루엣이라 볼 수 있으며 테일러드 칼라와 쓰리버튼의 여밈으로 되어있다. 그의 재킷이 다른 모즈족들에 비해 슬림한 실루엣인 것은 남들보다 더욱 신경을 쓴 맞춤형 정장을 착용한 것으로 그가 얼마나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완벽해 보이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색상은 회색과 검정 스트라이프 무늬, 자주색, 어두운 갈색 등을 사용했다. 그와 함께 몰려다니는 모즈족들이 원색 또는 연한 분홍색이나 하늘색의 옷을 입는 것에 비해 그는 어둡거나 차가운 느낌의 색상을 주로 입는 것을 볼 수 있다. 팬츠의 경우는 자주색, 검정, 어두운 갈색, 회색, 그리고 데님 소재 중에서 코디네이션 해 착용한다. 바지의 폭이 좁은 편이며 기장도 발목선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미의 의상이 대체로 어두운 색상이 사용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고급스러움을 살리기 위함

도 있으며 영화의 주인공으로 그의 내면에 있는 삶에 대한 회의와 현실에 대한 우울함 등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영화의 후반에 모든 것에 회의와 절망을 느낀 지미가 브라이트 해변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이 때 그는 붉은 보랏빛을 띠는 자주색의 테일러드 정장을 입는다. 이러한 색상은 예로부터 고급스럽게 여겨지며 대중보다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색상으로 여겨지면서도 내적인 불안과 외로움, 슬픔을 나타내는 상반되는 느낌을 지닌 것으로 여전히 부유층을 동경하면서도 불안과 슬픔, 외로움을 담은 지미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스쿠터를 탈 때는 항상 큰 사이즈의 어두운 녹색색 파카를 입어 추위를 피하고 값비싼 맞춤형 정장에 흠이 묻는 것을 방지하며 그가 얼마나 옷에 집착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다.

## 2) 스테프

주인공 지미를 비롯한 많은 모즈족 남성들의 관심을 받는 10대 모즈족 여성이다. 직업은 마트의 판매원으로 낮에는 마트에서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지만 직업의식이 있다거나 열성적이지는 않다. 퇴근 후에는 모즈족들과 환각제를 먹고 춤을 추며 어울려 다니길 좋아한다. 스테프는 대체로 도도하게 행동하지만, 지미와 마찬가지로 환각제의 영향을 받아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도 보인다. 많은 모즈족 남성의 관심을 받는 캐릭터인 만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모즈족 중에서 가장 멋있고 리더쉽을 발휘하는 남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영화 내내 남자친구가 바뀐다.

패션 스타일은 모즈족의 대표 여성인 메리퀸트 처럼 장식이 없이 심플한 스타일을 착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무릎 길이의 원피스나 투피스 즐겨 입는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다소 여유있는 X형 실루엣과 H형 실루엣이다.

직장에서는 마트의 유니폼을 입고 평소에는 길

<표 1> 지미 쿠퍼의 패션 스타일

상황	패션 스타일	영화 장면
직장	스트라이프 무늬의 피트되는 테일러드 재킷, 회색 셔츠, 스트라이프 넥타이, 블랙 팬츠	
일상	자주색 테일러드 재킷, 폴로 티셔츠, 스웨터, 데님 팬츠, 자주색의 면소재 팬츠	
모즈족 모임	카키색 야상 점퍼	
브라이트 해변 I	다크 브라운색 슈트, 흰색 와이셔츠, 카키색 야상	
브라이트 해변 II	네이비색 V넥 스웨터, 데님 팬츠, 자주색 테일러드 재킷, 흰색 와이셔츠, 블랙 넥타이, 블랙 팬츠	

(출처: 『콰드로페니아』 DVD, 1979)

게 풀어놓는 머리를 하나로 깔끔하게 묶는다. 유니폼을 착용하기 때문에 의상에 신경쓰는 것은 볼 수 없지만,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거의 민낯과 같은 연한 메이크업을 한 것을 통해 모즈족의 성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상에서는 V넥 또는 라운드 넥라인의 스웨터에 검정색 H라인 스커트를 입는다. 이 때도 전체적으로 편안한 스타일의 H형 실루엣을 유지한다. 아우터로는 검정색 가죽 코트를 입고 신발은 검정 구두나 흰색의 스틸레토 힐을 신는다. 영화

〈표 2〉 스테프의 패션 스타일

상황	패션 스타일	영화 장면
직장	라운드 가디건, 검정색 H라인 스커트, 검원 유니폼, 포니테일 스타일	
일상	검정 가죽 코트, V넥라운드백의 스웨터, 검정색 H라인 스커트, 앞이 뾰족한 검정 구두, 포니테일로 묶거나 자연스러운 풀 긴머리	
모즈족 모임	베이지색 민소매 블라우스, 베이지색의 스커트, 잘 손질된 헤어스타일	
브라이튼 해변	베이지색 셔츠칼라블라우스, 검정색 스트레이트 팬츠, 베이지색 H라인 스커트, 검정색 민소매 블라우스, 검정색 H라인 스커트, 같이 뾰족한 흰색구두	

(출처: 『콰드로페니아』 DVD, 1979)

에서 가죽 소재는 대개 로커족의 의상인 가죽 점퍼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스테프의 경우 같은 가죽소재라 하더라도 테일러드 칼라에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과 여유있는 사이즈로 바이커 재킷 스타일의 로커족 가죽 점퍼와는 차별성을 띄며 외관상 부유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즈족의 특징을 보여준다. 색상도 블랙으로 모던함과 세련미와 함께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모즈족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는 베이지색의 민소매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착용한다. 이 상황에서

는 다른 때보다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는 데 평소에는 하나로 묶거나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있는 채로 두던 긴 머리를 풀고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머리카락의 끝이 안으로 둥글게 말리는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차분하고 가지런한 스타일을 유지한다. 브라이튼 해변의 장면에서는 베이지색 셔츠칼라 블라우스와 발목기장의 검정색 스트레이트 팬츠를 입고 등장을 한다. 영화에서 스테프가 유일하게 바지를 입은 장면으로 런던에서부터 브라이튼 해변까지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고 모즈족 남성

들이 스쿠터를 탈 때 고가의 옷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카를 덧입는 것처럼 그녀 역시 의상을 중요시하며 스커트의 오염을 막고 싶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팬츠와 코디네이션한 이 장면에서도 베이직한 컬러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모즈 스타 일임을 표현했다. 이 후에는 다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거나 검정색 민소매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스테프의 경우 전반적으로 디테일이 없이 심플한 디자인에 옷의 색상을 검정과 흰색, 베이지색 등 모노톤이나 베이직한 색상을 택해 모던한 느낌을 표현한다.



### 3) 에이스 페이스

모즈족과 로커족이 대립하게 되는 브라이튼 해변 장면부터 등장하며 모즈족들로부터 리더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모즈족 중 유일하게 가장 좋은 베스와 스쿠터를 탄다. 모즈족의 우상으로 표현되지만, 실상은 호텔의 벨보이이다. 모즈족과 함께 할 때는 과묵하고 당당하며 자신감이 넘치지만, 벨보이로 일하는 동안에는 고객과 상사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실수를 하는 나약하고 별 볼일 없

는 존재이다. 가장 좋은 스쿠터를 타고 남다른 패션으로 브라이튼 해변에 모인 모즈족들 사이에서 주목 받지만, 영화 후반에, 지미에게 벨보이로 일하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며 모즈족들이 겉모습만은 지나치게 단정함을 추구하고 고가의 옷을 입어도 실체는 나약하고 가난한 노동자 계층일 뿐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해준다. 당시 기계화와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 계층이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을 위해 패션 스타일과 취미생활 등을 통해 상위계층에 대한 동경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여주지만 결국 같은 처지의 주인공에게는 그의 삶에 대한 실망감으로 절망을 주게 되는 인물이다.

일을 할 때는 호텔 벨보이의 유니폼을 착용하는데 색상은 회색이다. 브라이튼 해변에서는 다른 모즈족과는 차별화되어 회색 정장에 회색 트랜치 코트를 입는다. 등장하는 장면이 적기 때문에 모즈족으로 한 가지 스타일만 보여주지만 색상에서 다른 모즈족과 차별성을 띠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모즈족 안에서는 매우 차별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눈에 띄지만, 그 역시 딱 맞는 사이즈의 테일러드

<표 3> 에이스 페이스의 패션 스타일

상황	패션 스타일	영화 장면
직장	호텔의 벨보이 유니폼	
브라이튼 해변 장면	회색 테일러드 수트, 와이셔츠, 회색 넥타이, 회색 트랜치 코트	

(출처: 『콰드로페니아』 DVD, 1979)

수트를 입고 같은 색상의 넥타이를 매는 등 의상의 디자인적 요소의 특징에서는 모즈족임을 보여준다. 다른 모즈족들과 달리 스쿠터를 탈 때에도 회색의 트렌치코트를 착용한다. 헤어스타일도 짧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그가 모즈족 사이에서 더욱 세련된 패션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은 그가 호텔에서 일하며 모즈족들이 동경하는 세련되고 단정한 부유층 스타일을 많이 접해보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직장과 모즈족의 모임에서 모두 회색의 옷만을 입지만, 모즈족으로서의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반면, 벨보이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쓴 그의 모습에서는 허술함과 어리숙함이 느껴진다. 같은 색상이라 할지라도 옷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그의 위치와 태도가 모즈족의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4) 그 외의 모즈족

주요 인물 외의 모즈족 패션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단정하며 편안한 느낌을 준다. 남성은 대개 셔츠에 타이를 매고 맞춤 정장을 입거나 셔츠칼라의 폴로티나 셔츠칼라의 스웨터를 입었다. 실루엣은 주인공 지미에 비해서는 여유있는 H형 실루엣이거나 X형 실루엣이다. 여성은 주로 흰색이나 연한 색조의 블라우스에 검정색 H라인 스커트나 베이지색 플레어 스커트를 매치해 투피스로 입거나 흰색이나 베이지색 등의 원피스를 입는다. 상의는 플랫 칼라인 경우가 많으며 귀여운 느낌의 디자인이 많다.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 연한 분홍, 연한 파랑, 어두운 갈색, 밝은 녹갈색, 흰색 회색 등 밝은 색상이나 원색을 주로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원하는 상향지향 성향을 띠며 나타난 것으로 상류층을 동경하는 욕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녀 모두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하며 신발은 앞 코가 뾰족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헤어스타일은 헤어샵에서 단정하게 손질 받는다. 웨이브가 있는 스타일보다는 스트레이트 형에 드라이를 해서 둥그랗고 단정한 스타일을 많이 하며 평소에도 빗을 가지고 다니며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드라이를 하며 깔끔한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즈족들은 스쿠터를 타고 몰려다니는 데, 이때는 남성들은 모두 유니폼처럼 어두운 녹갈색의 파카를 입어 본인들이 모즈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들이 착용하는 파카는 비싼 맞춤정장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검정 가죽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록커족과 차별화되며 모즈족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도 볼 수 있다. 모즈족 여성들은 직접 스쿠터를 운전하지는 않는다. 대신 모즈족 남성들의 스쿠터 뒤쪽에 함께 타고 다니고 이 때 그녀들은 대체로 테일러드칼라의 가죽 코트를 입는다. 영화에서 모즈족이 타는 스쿠터에는 많은 거울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영국 정부에서 청소년들이 스쿠터를 타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스쿠터에 백미러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자 반항의 의미로 4개에서 많게는 32개까지의 거울을 달고 다니게 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역시 기성세대와 주류세대에 대해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젊은 계층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3. 『콰드로페니아』에 나타난 모즈 스타일 분석

영화에서 나타난 모즈 스타일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루엣은 문헌 자료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착용감이 편하고 심플한 실루엣으로 여유있고 편안한 X형이나 H형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쓰리 버튼과 플립포켓이

<표 4> 그 외의 모즈족의 패션 스타일

구분	패션 스타일	영화 장면			
남성	테일러드 수트, 와이셔츠, 셔츠, 폭이 좁은 넥타이, 폴로티, 셔츠 칼라 스웨터, 데님 팬츠, 모자				
여성	라운드 또는 V넥 니트, 슈프트 실루엣 원피스, 블라우스, H라인 스커트, 플레어 스커트, 테일러드 칼라 코트				

(출처: 『콰드로페니아』 DVD, 1979)

달린 테일러드 재킷과 슬림 팬츠로 구성된 맞춤형 정장이나, 셔츠, 피케 티셔츠, 데님 팬츠에 야상형 파카를 착용했다. 여성은 블라우스, H 라인 스커트, 슈프트 실루엣이나 세미 A라인의 원피스, 테일러드 칼라의 코트를 주로 착용했다. 색상의 경우 빨강, 노랑, 초록, 연한 분홍, 연한 파랑, 남색, 갈색 등과 무채색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밝은 계열로 흰색, 검정을 비롯한 원색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정하고 깔끔함을 표현하며, 어둡고 답답한 자신들의 현실을 부정하고 동경의 대상인 부유층처럼 여유 있고 밝

은 느낌을 준다. 소재는 주로 표면이 매끈한 가죽이나 합성소재, 또는 모헤어가 사용되었다. 무늬는 남성의 경우 스트라이프나 체크, 여성의 경우는 잔잔한 무늬나 칼라 끝의 레이스 장식을 볼 수 있었다. 액세서리의 경우는 남성들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얇이 뾰족한 구두 또는 로퍼를 신었다. 여성의 경우는 스틸레토 힐을 신고 솔더백을 맺으며 손목에는 굵기가 가는 팔찌를 착용해 과도한 장식은 피하고 심플하고 깔끔한 스타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어스타일은 항상 헤어 드라이기와 헤어스프레이를 이용해 동그랗고 단

&lt;표 5&gt; 영화 『콰드로페니아』에 나타난 모즈 스타일의 특징

	특징	남성	여성
실루엣	남성: 편안하고 여유있는 X형과 H형 실루엣 여성: 대체로 H형 실루엣		
색상	무채색부터 빨강, 노랑, 자주, 초록 등의 원색까지 밝고 다양함		
소재	표면이 매끈한 가죽, 합성소재, 모헤어		
액세서리	모자(페도라), 선글라스, 스틸레토 힐, 숄더백		
헤어스타일	둥그랗고 단정한 스타일		

(출처: 콰드로페니아 DVD, 1979)

정하며 남성들은 짧은 길이를 유지하고 여성들은 긴 머리의 경우는 어깨선 정도의 기장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숄터트와 같은 짧은 기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모즈족들이 스쿠터를 탈 때는 항상 파카나 트랜치코트를 입어 자신들의 맞춤형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강박적일만큼 패션에 신경을 쓰며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를 추구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표현한 모즈 스타일의

특징은 <표 1>에서 <표 5>로 정리될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하위문화 스타일 중 하나인 모즈가 나타난 1960년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모즈족의 특징에 대해 문헌 고찰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1960년대 영국에서 모즈가 유행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콰드로페니아

아'에 등장하는 주요 모즈족 인물들의 의상을 분석해보며 모즈 스타일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의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즈족들은 대부분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였다. 그들은 낮 시간에는 일을 하고 그 수입의 대부분을 옷을 사거나 자신을 꾸미는 일에 투자하는 것에 사용하며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을 표현하였다. 지미나 에이스와 같은 모즈족 남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맞춤 제작을 해 여유가 있으면서 몸에 잘 맞는 테일러 수트를 입거나 자신들이 부유해보일 수 있도록 가슴에 브랜드의 로고가 있는 옷을 입었다. 항상 헤어드라이기와 헤어스프레이를 이용해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했다. 신발은 앞이 뾰족한 구두 또는 로퍼를 신었다. 페도라와 같은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기도 했다. 스테프르 통해 표현된 모즈족 여성은 흰색, 검정과 같은 베이직한 색상이나 때때로 원색으로 되었으며 디테일이 없이 심플한 디자인의 가디건이나 스웨터 셔츠 또는 블라우스와 무릎 길이의 H라인 스커트를 입어 단정하고 모던한 느낌을 표현한다. 헤어스타일은 대체로 깔끔하고 단정하게 유지했으며, 기장은 어깨선의 긴 머리카락이나 숏컷과 같은 짧은 머리를 유지했다. 신발은 앞이 뾰족한 스틸레토 힐을 신었다.

모즈족들은 베스파나 람브레타와 같은 스쿠터를 타고 다녔는데, 스쿠터를 탈 때는 탁한 녹색색 파카를 입어 자신들의 맞춤정장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했다. 이를 통해 그들이 강박적으로 패션에 신경을 쓰며 단정하고 말끔한 외모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즈족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춤을 추며 파티를 하거나 놀기 위해 암페타민이라는 각성제를 복용하며 현실을 잊고 환각 상태를 보이며 자신들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 영화는 그들의 지치고 힘든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 상류층 동경했던

모즈족의 심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영화에서 등장하는 모즈족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색상의 맞춤 수트를 착용하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함으로써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본인들의 힘겹고 지친 삶은 느낄 수 없을 만큼, 밝고 즐겁게 지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들의 이런 이질적인 모습은 상류사회에 대한 동경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심해지는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그들만의 삶의 모습과, 취향, 취미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의 단정하고 깔끔한 겉모습과 달리 내면에는 이와 같은 반항과 저항의 심리가 담겨 있다.

모즈 스타일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여유감 있는 핏의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형태는 X형이나 H형 실루엣으로 여유 있게 몸에 잘 맞는다. 색상의 측면에서는 밝은 색상과 흰색, 검정을 사용함으로써 고급스러움과 함께 그들의 내면의 우울함과 삶의 고단함을 표현할 수 있다. 소재는 표면이 매끈해 차가운 느낌이 드는 가죽이나 합성섬유를 사용하거나 모헤어와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을 사용한다. 무늬는 스트라이프나 체크 또는 크기가 작은 무늬를 사용하거나 무늬가 없는 경우도 많아 모던함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는 움직이는 영상의 순간을 캡처하여 분석함으로써 소재를 시각적 특성으로만 분석해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영화의 인물들이 전신으로 촬영되기 보다는 상반신 위주로 촬영되고 춤을 추거나 뛰어다니는 등 빠르게 움직여 모든 패션 아이템을 분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문헌이나 모즈로 대표되는 인물들을 분석한 경우와 달리 모즈 스타일을 재현한 시각적 자료인 영화를 인물간의 대화나 행동을 참고하여 분석한 것으로 차별화되므로 그 의의가 있다.

현대에 모즈 스타일은 꾸준히 의상에 영감을 주는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이질적인 자신들의 삶에 좌절과 절망을 하는 모즈족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다른 문화에 영향을 주고 변화하는 지에 대한 내적연구와 모즈와 관련한 하위문화의 흐름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도 모즈를 이해함에 있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권해기 (2002). 1960년대 영국 하위문화 패션에 관한 연구: 대중음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2.
- 2) 양미경 (2002).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95.
- 3) 이명진 (1998). 1990년대 남성복에 재현된 모즈 스타일(mods style)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0.
- 4) 정연자 (1997). 모즈룩(Mods Look)에 관한 연구, 복식, 33(-), pp.189-199.
- 5) 이정원, 금기숙 (2008). 1960년대 록 스타 패션의 도상학적 해석, 복식, 58(6), pp. 69-84.
- 6) 송아미 (2013). 메리 퀴트의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05.
- 7) 정홍숙 (2004). 서양복식사, 파주: 교문사, p.389
- 8) Ingrid, L. (1999).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재원 율김 (2002). 서울: 한길아트, p.355.
- 9) 정홍숙. 앞의 책, p.389.
- 10) 권해기. 앞의 책, p.4.
- 11) 김창남 (1995).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서울: 도서출판 한울, pp.61-65.
- 12) Hebdige Dick (1981).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이동연 율김 (1998). 서울: 현실문화연구, pp.78-79.
- 13) 양미경. 앞의 책, p.11.
- 14) 이재정, 박신미 (2011). 패션, 문화를 말하다, 서울: 예경, p.185.
- 15) 이재정, 박은경 (2004).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서울: 예경, p.50.
- 16) 임수미 (1997). Space Age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 17) 심규희 (2007). 앙드레 쿠레주(Andre Courreges) 디자인 연구: 1960년대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 18) 간문자 (1998). 청소년(靑少年) 문화(文化)가 스트리트 패션에 미친 영향(影響): 1960년대(年代)를 중심(中心)으로, 패션 비즈니스, 2(1), p.36.
- 19) 이재정, 박신미. 앞의 책, p.188.
- 20) 정홍숙. 앞의 책, p.392.
- 21) 이재정, 박신미. 앞의 책, p.188.
- 22) 정홍숙. 앞의 책, p. 394.
- 23) 이재정, 박은경. 앞의 책, p.246.
- 24) 김정희 (2012). 팝음악에 나타난 패션과 음악트렌드의 상관관계 연구: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4.
- 25) Polhemus, T. (1994). Streetstyle: from sidewalk to catwalk, New York: Thames and Hudson, p.51.
- 26) Connikie, Y. (1990). Fashions of a decade: The 1960s, New York: Facts On File, p.40.
- 27) Hebdige, D, op. cit., pp.78-79.
- 28) Hopkins, J. (2011). 맨즈웨어, 김윤희 외 율김 (2013). 파주: 교문사, p.43.
- 29) Urbandictionary(검색어: quadrophenia), 자료검색일 2014. 6. 14. <http://www.urbandictionary.com/define.php?term=quadrophenia>

## **A Study on Mod Style Based on Costumes of the Movie 『Quadrophenia』**

**Lee, Jin Kyoung · Lee, Youn Hee<sup>+</sup>**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mod style in the movie 'Quadrophenia' that was filmed during the age of mods in the 1960s. For the method of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was mainly used for research of features of the mod style and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during the 1960s, and analysis of the costume of the main characters and the plot of the movi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the mods were the poor working-class youth in Britain, so they always had a desire to escape from the difficulties in life. This dire circumstance consequently had led to rise in rebellion against the older generation. The mods had spent most of the income on buying clothes or adorning themselves. The majority of the mods' style is neat and modern as the silhouette or details are quite simple.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menswear is the order-made suit, including a tailored jacket with no-turn-up narrow trousers. The women used to wear a blouse, cardigan, or pullover with a knee-length H-line skirt. Mods shows well a fashion which expresses the mental world reflected in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The mainstream of the color is bright, neutral or vivid. To sum up,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d aroused the mods' vigorous resistance to the older generation, longing for high society, and conflicts between the classes, which triggered the mods' desperate desire to be shown through style, taste, and hobby.

Key words: Quadrophenia, Mods style, subculture